현대소설연구(제93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4.03.93.123

안수길의 『통로』, 『성천강』 연작으로 읽는 근대전환기 사회문화

-『서우』, 『서북학회월보』와 겹쳐읽기를 통해서*

윤 영 실**

요약

이 논문은 안수길의 소설 『통로』와 『성천강』이 재현한 윤원구라는 개인의 삶을 통해 근대전환기 사회·문화를 미시사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그 첫 번째 파트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통로』가 그려내는 원구의 증조부, 조부, 부친의 몰락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원구 가문의 몰락이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시기 급격히 기울어가던 국가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살펴본다. 특히 상인이었던 조부와 부친의 몰락 과정은 량치차오가 분석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멸국신법'(나라를 망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원구가 〈서북학회〉와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근대적 '앎'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조명한다. 『성천강』은 사료 부족으로 거의 알려진 바 없는 〈서북학회〉 함흥 지회의 활동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창이자, 근대전환기 학술운동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가 된다. 4장에서는 원구가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을 통해 배운 '앎'이란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서우』, 『서북학회월보』에서 제시되는 '앎'의 새로운 배치를 개괄하는 한편, 원구가 〈서북학회〉 시절 배운 앎의 핵심은 인민을 국가의 정치적 주체로 삼는 근대국가 사상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은 일제 무단통치기 각 지역의 풀뿌리 운동으로 설립된 보통 및 중등학교를 통해 계승되었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을 배태해 마침내 3.1운동으로 이어졌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숭실대 조교수

주제어: 안수길, 『통로』, 『성천강』, 서북학회, 근대계몽기 학술운동

목차

1. 근대전환기 사회문화의 변동과 『통로』, 『성천강』 연작
2. 가문의 몰락, 멸국(滅國)의 신법(新法)
3. 근대계몽기 학술운동과 〈서북학회〉 함흥지회
4. 앎의 배치 전환과 근대적 '인민'의 탄생
5. 결론을 대신하여

1. 근대전환기 사회문화의 변동과 『통로』, 『성천강』 연작

'개화기' 내지 '근대계몽기'라고 불리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근대전환기는 연구자에게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난감한 시대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적 삶의 양상들이 이제 막 무서운 기세로 싹터오던 시기이기에 매력적이지만, 한 '세계'의 파열과 또 다른 '세계'의 발생이 짧은 기간에 응축되어 일종의 아노미 상태를 띠고 있기에 분석적 접근이 쉽지 않다. 이 시기 매체에 나란히 등장하는 순한문, 순국문,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한문체들이 뚜렷하게 가시화하듯,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시대라는 점도 매혹과 곤혹을 함께 불러일으킨다. 임화가 이 시기를 구시대도 신시대도 "확연한 내용과 독자의 형식에 의하여 통일된 개성"을 띠지 못했던 시기, "신시대의 탄생이나 구시대의 사멸이 모두 가능적"이었던 '과도기'[1]로 지칭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식민지 경험을 공유한 다른 비서구 세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과도기의 카오스적 변신은 제국주의 열강의 외부적 충격에 의한 '식민지적 변형'(colonial transformation)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근

1) 임화, 「개설신문학사」, 임규찬 외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132-133면.

대가 외발적, 타율적인 것에 그쳤음을 뜻하지 않는다. 1906-1910년 사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학회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망국과 식민화를 향해가던 이 시기야말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인민의 주체적 역량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때였다. '우승열패'의 시대 국망의 위기감 속에서 신·구 문화를 독특하게 융합하고, 앎의 배치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며, '나-우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아와 집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해가던 그 시대의 열기는, 빛바랜 옛날 잡지의 뭉개진 활자들을 흘러넘쳐 오늘날까지 어김없이 전달된다.

이처럼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평범한 이들이 삶의 습속과 문화적 환경과 앎의 배치와 주체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던 양상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정치사상사, 제도사, 경제사, 개념사, 학술사, 민족운동사, 풍속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전환기를 연구해 왔지만, 이 글에서는 안수길의 소설 『통로』와 『성천강』[2]을 당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창으로 삼고자 한다.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연재된 『통로』, 『성천강』 연작은 윤원구라는 인물의 성장서사를 중심으로 대략 1894년부터 1921년까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전집 기준으로 1천 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서사는 근대전환기 문화변동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풍속지이자 근대적 인민의 탄생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텍스트로서도 가치가 높다. 특히 원구가 〈서북학회〉를 매개로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에 연루되며 근대의 정치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은 『서우』, 『서북학회월보』 같은 학술지가 담고 있는 시대상을 한결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로』와 『성천강』의 작품성에 비해 선행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안수길 연구가 『북간도』와 만주 체험에 압도적으로 치우쳐 왔던 까닭이다. 얼마간의 연구도 대개 『북간도』 분석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김윤식은 『

2) 안수길, 『통로』, 『현대문학』, 1968.11-1969.11(안수길, 『안수길전집』 8, 글누림, 2011 수록); 안수길, 『성천강』, 『신동아』, 1971.1-1974.3(안수길, 『안수길전집』 13, 글누림, 2011 수록)

통로』 연작이 『북간도』가 담고 있는 환상으로서의 민족주의와 가부장제를 계승하면서도, '한갓' 장사꾼의 사상과 교사의 사상을 담아내는 데 그쳤다는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다.[3] 최경호는 『북간도』 후반부에서 역사적 사실의 지나친 개입으로 소설적 구조가 와해된 반면, 개인을 통해 민족문제를 그려낸 『통로』, 『성천강』은 한결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고 평가한다.[4] 강진호는 『성천강』을 근대 민족주의자의 탄생 서사로 분석하는 한편, 소설에 담긴 근대전환기의 풍속에 주목한 바 있다.[5] 김종욱은 『통로』 연작에서 윤원구 노인의 회고록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서술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신계골-함흥-문명세계를 주변과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근대적 시공간 의식의 한계를 지적했다.[6]

본고는 『통로』, 『성천강』 연작이 개인의 삶을 통해 당대의 풍속과 역사를 풍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이 소설들을 '인물을 통해 역사를 포착'(capturing history through a person)[7]하는 미시사적 텍스트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소설이라는 '허구'적 텍스트를 통해 당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로』 연작이 안수

3)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245-271면.

4) 최경호, 「안수길론: 『통로』, 『성천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연구』 2, 계명어문학회, 1986, 145-172면. 이 논의는 안수길 전반에 대한 다음 연구서로 확장되었다. 최경호, 『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1994.

5) 강진호, 「근대 초기의 풍속과 민족주의적 열정: 『성천강』(안수길)론」, 『현대소설연구』 48, 2011, 한국현대소설학회, 171-196면.

6) 김종욱, 「관북지역과 변경의 상상력」, 『안수길 전집』 8, 글누림, 2011, 765-779면. 그밖에도 『통로』, 『성천강』을 다루고 있는 몇 편의 석사논문이 있다. 서병국, 「안수길의 장편소설 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1985; 김창해, 「안수길 소설의 공간모티프 연구: 『통로』, 『성천강』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논문, 1995; 백진영, 「안수길의 장편소설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1998; 조수진, 「안수길 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3.

7) 곽차섭, 「까를로 긴즈부르그와 미시사의 도전」, 『역사와 경계』 34, 부산경남사학회, 1998, 227-257면; 이시항을 통해 17-8세기 서북 지역 엘리트를 미시사적으로 조명한 연구로는 남호현, 「이시항의 삶을 통해 본 서북지역 엘리트의 '미시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105, 한국역사연구회, 2017, 353-378면; Sun Joo Kim, Voice from the North: Resurrecting regional identity through the life and work of Yi Sihang(1672~1736),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길의 아버지인 안용호(安容浩)의 실제 회고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안수길의 미망인 김현숙 여사는 소설의 소재가 된 안용호의 회고록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소설 내용도 회고록이 담고 있는 안용호의 가족사와 거의 일치한다고 증언했다.[8] 실제로 작품 속에서 원구의 만주 이주 시기(1921)와 안용호의 이주 시기가 같고, 원구의 맏아들 출생 시점도 안수길의 출생년도(1911)와 일치한다. 『통로』, 『성천강』의 회고록과 그 안에 담긴 '회술레'(공개 처형) 장면이 안수길의 단편 「꿰매 입은 양복바지」[9]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회고록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통로』 연작에는 1911년생인 안수길로서는 알기 어려운 근대초기의 생생한 경험과 느낌이 담겨 있다. 『통로』 연작에서 풍속 묘사나 시대상의 재현은 식민지 말기에 근대초를 그린 『봄』(이기영, 1940), 『탑』(한설야, 1940-1941), 『대하』(김남천, 1939)와 비교해도 오히려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1911년생인 김남천의 『대하』가 순전히 상상적 구성물인 것은 물론이요,[10] 1895년생인 이기영, 1900년생인 한설야가 그려낸 러일전쟁부터 병합까지의 시대상도 유소년기의 어렴풋한 기억에 의지한 데 불과했다. 반면 『통로』 연작은 러일전쟁 이후 거세게 타오른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아냈는데, 이는 1911년생 안수길의 작가적 상상력을 넘어 청소년 시절 이를 체험했던 안용호(1890년생)의 회고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

8) 백진영, 위의 글, 29면.

9) 「꿰매 입은 양복 바지」에서 아버지의 회고록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모필로 미농 괘지에 정성스럽게 쓰신 것을 노랑 헝겊으로 부배해 만든 뚜껑에다가 붉은 노끈으로 손수, 중후하고, 품위 있게 제책한 세 권" 안수길, 「꿰매 입은 양복바지」, 『문학』, 1966.5(『안수길전집』 2, 글누림출판사, 2013, 509면)

10) 김남천의 『대하』는 1906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밝혔으나, 실제로는 1910년 경의 사실들이 혼재되어 있다. 김종욱, 「김남천의 『대하』에 나타난 개화풍경」,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2007, 103-124면.

그렇다고 해서 본고가 『통로』와 『성천강』을 단순히 '사실들'의 집적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설 속에서 회고록의 작가인 윤원구 노인과 회고록을 바탕으로 서사를 재구성하는 서술자의 관점과 목소리에는 차이가 있다. 『통로』는 윤원구 노인이 "칠순 되던 해에 손수 쓴 회고록"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며, 이 회고록을 말줄임표(…. ….)로 표시한 인용단락의 형태로 소설 속에 여러 차례 삽입한다. 때로는 동일한 사건이 윤원구 노인의 회고록과 서술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서술된다. 서술자가 회고록에 대해 기억이 불확실하다거나 주관적 감상으로 윤색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서술자가 역사적 맥락을 제시한 후 회고록을 인용해 체험 당사자의 심경을 전하기도 한다. 이런 중층적 서술방식을 통해 회고록 작가가 당대를 살아가는 자의 주관적 체험을 생생하게 기록한다면, 소설의 서술자는 후대에서 조망하는 자의 역사적 성찰과 분석을 더함으로써 개인의 체험을 집단의 역사로 확장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서술의 두 층위를 섬세하게 구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윤원구(안용호)의 회고록에 바탕을 둔 『통로』 연작을 중심으로 근대전환기 사회문화적 변동을 가능한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60-70년대에 이 서사를 재구성한 작가 안수길의 서사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안수길은 4.19와 「분지」 필화 사건을 겪으며 다져진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통로』 연작을 구한말부터 3.1운동까지 근대적 정치 주체(통치 대상으로서의 '민(民)'을 넘어 정치적 자기-결정, 자기-통치의 주체로서의 '인민')가 탄생·성장하는 과정으로 서사화했다.

논문의 분량상 작가의 서술 층위에 대한 분석은 별고에서 다루고 본고에서는 주로 소설에 재현된 근대전환기 사회, 문화적 변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것이다. 특히 윤원구가 본격적으로 신학문을 접하고 근대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서북학회〉 활동이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우』나 『서북학회월보』 같은 학술지와 안수길의 소설들을 교

차하여 읽음으로써, 소설의 구체성으로 역사를 보충하고, 역사의 실증성으로 소설의 사회문화사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본고는 『통로』 연작에서 후경화된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서우』, 『서북학회월보』 및 당대의 사료들을 통해 좀더 상세히 보완하면서, 역사와 개인의 삶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전환기 한국, 그중에서도 함흥이라는 특정 지역 '개화' 지식인들의 "삶의 방식, 신념, 태도를 결정하는 그 사회 특유의 의미체계로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12]하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다룬다. 2장에서는 『통로』가 그려내는 원구의 증조부, 조부, 부친의 몰락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원구 가문의 몰락이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시기 급격히 기울어가던 국가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살펴본다. 특히 상인이었던 조부와 부친의 몰락 과정은 량치차오가 분석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멸국신법'(나라를 망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의 몰락에 개인들의 운명이 종속되었던 식민지적 조건은 후속논문에서 분석할 근대의 정치적 인민의 탄생이 왜 반제 민족주의라는 주류적 형태(form)로 표현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원구의 〈서북학회〉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사료 부족으로 거의 알려진 바 없는 〈서북학회〉 함흥 지회 활동을 가늠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원구가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을 통해 배운 '앎'이란 무엇

11) 안수길의 다른 소설들 역시 역사를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안수길의 단편 「원각촌」은 안용호가 깊게 관여했던 용정 대각교(大覺敎) 농장을 그린 것으로, 대각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한동민, 「백용성의 만주 대각교 농장과 함양 화과원」, 『大覺思想』 28, 대각사상연구원, 2017, 77-127면. 안용호가 1920년대부터 대각교 농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황은 뒤늦게 소유권 분쟁이 불거진 1938년의 몇몇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龍井 大覺敎會에 突然 解散 通告」, 『東亞日報』, 1938.4.3; 「龍井大覺敎に對し京城本部から解散命令」, 『間島新報』, 1938.4.12.

12) 내털리 데이비스, 양희영 역, 『마르탱 게르의 귀향』, 지식의풍경, 2000. 229면.

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서우』, 『서북학회월보』에서 제시되는 '앎'의 새로운 배치를 개괄하는 한편, 원구가 〈서북학회〉 시절 배운 앎의 핵심은 인민을 국가의 정치적 주체로 삼는 근대국가 사상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은 무단정치기 각 지역의 풀뿌리운동으로 설립된 보통 및 중등학교를 통해 계승되었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을 배태해 마침내 3.1운동으로 이어졌음을 살펴본다.

2. 가문의 몰락, 멸국(滅國)의 신법(新法)

『통로』와 『성천강』 연작은 1894년부터 1921년까지의 서사시간 안에 윤원구의 유년기의 가족사부터 교육 과정, 교사로 재직하다가 갑산 지역 3.1운동을 주도하여 2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북간도로 이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서사는 윤원구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 숙부 혁찬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에 일종의 가족사연대기로 간주될 수 있다. 서사시간에 대한 정보는 소설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확실한 시간 지표들과 역사적 사건들을 기준으로 연대기를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흥민요는 1902년에 발생했고 이즈음 원구의 나이는 13살이었으니(1:5.1), 원구의 출생연도는 1890년으로 추정된다. 숙부 혁찬은 원구보다 10살(1:1.2) 내지 8,9살 많다(1:5.2)는 서술로 보아 1880~1882년생으로 보인다. 원구 아버지는 1893년, 갑술생(1874)인 황태자의 20세를 기념해 실시된 갑술과에 나이를 한 살 적게 속이고 응시(1:2.4)했다는 점에서 1873년생임을 알 수 있다. 갑술과에 낙제한 부친이 무역상을 하던 원구 조부의 파산으로 과거 공부를 접었다는 것으로 보아, 원구 조부의 파산은 갑술과 실시 이후이자 과거제 폐지 직전인 1894년 초로 추측된다. 이때 그의 나이가 44-45세라고 했으니(1:2.2), 45세로 치면 1850년생이다.

『통로』의 서사는 정월대보름 함흥 만세교 다리밟기에 대한 어린 원구의 추억으로 시작한다. 소설에서는 원구가 "세 살에서 대여섯 살 사이"라고 시점을 흐려놓았지만, 바로 그 날 할아버지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에서 1894년, 원구가 5살 때로 보는 게 타당하다. 장수를 기원하는 만세교 다리밟기는 작가인 안수길도 1910년대인 소년 시절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13] 만큼 지속적인 연례행사였다. 만세교 다리밟기 풍속 묘사에는 회고록 작가의 유년시절의 기억과 작가 자신의 기억이 포개져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만세교 다리밟기를 소재로 한 서사의 출발점을 굳이 1894년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작가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인다. 1894년이라는 역사의 상징적 분기점과 윤원구 가문의 몰락을 겹쳐놓음으로써 구세계의 붕괴를 좀더 극적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다.

> 증조부가 포청(捕廳)의 항수고, 조부가 큰 물산객주를 하고 있었다. 포청은 죄인을 잡는 관청, 항수는 그 우두머리, 좌수(座首)는 행정을 맡는 향청(鄕廳)의 책임자고 반수(班首)가 군사를 맡은 최고관. 원구의 증조부는 함흥의 삼수(三首) 중의 하나로 뚜렷한 존재였다. 거기에 국내외 무역상을 경영하는 실업가가 조부다. 아버지만 글방에 다니면서 과거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처지..... 조부가 증조부의 맏아들이고 아버지가 조부의 맏아들이고, 원구가 아버지의 맏이다. 장손귬인 것이다.(『통로』, 544면)

가문 성쇠의 역사는 포청의 항수(項首)였던 윤원구의 증조부까지 소급된다. 항수는 지방관아인 포청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직제나 신분적 지위는 불분명하다. 김윤식은 대대로 차별받아온 함경도 지역

13) 안수길,「망향기」,『안수길 전집』16, 글누림출판사, 2013, 67면. 안수길은 함흥에서 태어나고 근처 서호진 바닷가에서 5,6세부터 살았으며, 14살에 북간도로 건너갔다.「망향기」라는 수필에는 서호진에 살던 무렵 바다에서 놀던 일, 귀경대에 얽힌 전설, 매년 정월대보름 함흥까지 가서 만세교 다리밟기 하던 추억을 서술하는데, 작가의 이 추억들은『통로』에서 윤원구 노인의 일화들로 융합되어 있다.

민인 증조부를 ‘포도청 항수’로 설정한 것은 일종의 가문 부풀리기이며, 실제로는 형방 정도의 아전 집안이었으리라고 단언한다.[14] ‘포청’을 중앙 관서인 포도청(捕盜廳)으로, 항수를 종2품에 해당하는 포도대장으로 간주했기에 나온 평가다. 그러나 소설에서 언급한 ‘포청’은 지방의 치안을 담당했던 토포청(討捕廳)이며, 그 우두머리인 항수 역시 향리(鄕吏)의 일종일 터이니 굳이 가문 부풀리기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향리가 향촌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던 권세였다. 향리는 원래 고려시대 호족 집단에서 유래했으며, 조선 건국과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중인 계층으로 전락했지만, 지방행정의 실권자이자 여러 방식의 토색(討索)질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향리는 생원·진사시나 문·무과에 합격할 경우 대대로 향역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상급 지배신분인 사족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양반 관직에 임용될 수도 있었다.[15] 향리의 일부가 재지양반층으로 편입되면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향촌 ‘양반’의 범위는 두터워지고 경계 역시 모호해졌다.[16] 이런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원구의 증조부가 향리이고, 조부가 무역업을 하는 상인이며, 부친이 과거를 준비하다가 상인으로 돌아섰다는 설정은 상호모순이 아니다. 구한말의 신분 변동이 급격한 탓도 있지만, 향리 계층의 중인적 성격이 위로든 아래로든 이동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 “이 간나새끼들아, 우리 하나방이 뉘긴 줄 아니? 항수다. 포청 대장이다. 우리 하나방이 너어르 모두 잡아다가 목에다 칼을 씨운다…… ”
> 잠깐 아이들의 기세가 꺾이는 듯하더니, 처음 달려들던 아이가

14) 김윤식, 앞의 책, 254면.
15) 『신편한국사 25: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25_0020_0040_0060
16) 미야지마 히로시, 노영구 역, 『양반』, 너머북스, 2014, 65면.

"그래도 여기서는 네 하내비 항수가 앙이라 관찰새래두 소앵 (소용) 이 없다" (『통로』, 555면)

『통로』의 첫 장은 지방 향리로서 원구 가문이 누려왔던 위세가 꽤 큰 것이었지만, 19세기 말에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17] 인용문은 정월대보름날 원구(5세)와 삼촌 혁찬(13-15세)이 만세교 다리 건너 원구 이모네를 찾아갔다가 동네 아이들과 싸우는 장면이다. 소설은 함흥읍성을 경계로 주로 사족, 향리, 상인들이 사는 성안과 농사짓는 촌민(村民)들이 사는 성밖이 구시대의 신분 질서로 위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신분적 위계와 이에 기댄 향반과 관료들의 토색질은 "성 안 사람들에 대한 다리 건너 사람들의 적개심"(559면)을 야기해왔고, 훗날(1902년) 함흥민요가 일어난 원인이었다. 1894년에 벌어진 동네 아이들과 혁찬의 싸움은 그 전조로서 구시대의 신분질서가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혁찬은 자기 할아버지가 포청 대장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지만, 잠깐 흠칫했던 성밖 아이들은 "네 할아버지가 항수가 아니라 관찰사라도 소용이 없다"라며 오히려 몰매를 때린다. 구시대의 신분질서를 가볍게 무시하는 아이들에 비해 어른들은 아직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다. 원구 이모는 사돈도

17) 지역의 실질적 '양반'으로 군림하던 향리들의 위세가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퇴락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었다는 점은 1902년 함경남도 덕원읍을 찾은 윤치호 일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전국의 다른 지방처럼 (*덕원의-인용자) 지방관아는 엉망진창으로 절망적인 상태다. 지금 전혀 쓸모없는 작고 분리된 건물은 그 가치에 맞게 팔려야 한다. 하지만 딴 데 정신이 팔린 정부는 그 건물이 허물어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그 건물의 기와, 돌, 문, 마루 등등은 점점 사라져서 마을의 가옥에서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쓸모없고 지저분한 건물도 6명의 서기, 10명의 순경, 10명의 심부름꾼, 10명의 사동(使僮, 使傭), 3명의 정리, 3명의 향장 향원(鄕長 鄕員)보다는 덜 불쾌하다. 이들은 명분은 고사하고 실제로 지방의 "양반들"이다...(중략)... 이 지방관직은 그 지역의 특권층이 장악한다. 중앙정부의 고위 관직을 최고위 양반 계급이 독점하듯이 말이다. 양반으로서, 지방 특권층으로서 악덕과 온갖 권력 남용을 저지른다." 『국역 윤치호 일기』, 1902.5.7.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id/sa_028r_0050_0030_0020

령(혁찬)이 자기네 집에 다녀가는 길에 동네아이들에게 뭇매를 맞았다는 사실에 민망해하면서도, “만약 항수 영감이 노염을 낸다면 다리 건너 고역 마을 백성들이 편치 못할 것”(556면)을 걱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이어 일어난 원구 조부의 파산으로 조용히 묻혀버렸다. 조부는 개항 이후 발빠르게 무역상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평양 지방의 콩을 수매한 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주된 사업이었다. 소설에는 그의 뛰어난 상술을 보여주는 일화가 여럿 있지만, “포청 항수인 원구 증조부의 힘”(563면)도 큰 뒷받침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조부의 치부는 조선후기 장자상속제에 따라 가문의 부를 온전히 물려받은 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설에 따르면, 조부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도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한 것도 “완강한 대가족제도”였다. 일가친척들은 조부에게 “차례로 달려들어 용돈을 내라, 생활비를 달라”라고 주장했고, 사촌들은 “장손긁인 원구 조부가 치부한 데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재산도 밑천이 됐”으니 “그걸 좀 나누어 먹자”(564면)라고 요구했다. 조부가 사촌들을 직원으로 앉혔다가 손해본 일이 많았기에 대안으로 처제(처남)를 지배인으로 앉혔더니, 그가 몰래 빚을 잔뜩 져서 마침내 조부까지 파산에 이르게 만들었다. 때마침 돌아가신 증조부의 삼년상은 사업 재기를 위해 고향을 떠나려던 조부의 발목을 잡았고, 가문이 누려왔던 과거의 위세에 걸맞는 호화로운 장례식은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탕진시켰다(2,4).

남다른 안목과 상술로 근대 부르주아지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조부의 좌절은 대가족제도라는 전근대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를 굴절시킨 식민성 때문이기도 했다. 조부가 파산후 홀로 부산에 내려가 맨손으로 일군 성공담은 그의 상업적 능력과 시대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때는 한국에 기선이 현익환과 창룡환 두 척밖에 없던 1902년 무렵이었다. 경상도 일대의 상인들은 부산 객주집에 머물며 창룡환이 원산, 신포 등지에서 매집한 신태(새로 잡아 말린 명태)를 싣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 상인들 틈에 끼어 물산객주로 일하던 조부는 창룡환의 도착이 차일피일 늦어지

자 올해 명태가 잘 잡히지 않았음을 예상하고 미리 부산항의 구태(묵은 명태) 수량과 가격을 조사해뒀다. 그후 매일 절영도 최고봉에 올라 쌍안경으로 바다를 내다보다가 멀리서 들어오는 창룡환의 만선표(배 밑부분의 붉은 줄로 만선일 때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음)를 보고 바로 시장으로 뛰어가 구태를 모두 사들인다. 마침내 창룡환이 부산항에 도착해 신태 물량이 부족한 것이 밝혀지자, 구태 가격이 뛰어오르고 조부는 매점한 구태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4.3) 소설에는 이처럼 조부의 '비상한' 사업수완을 보여주는 비슷한 무용담들이 더 나온다. 그러나 박지원의 『허생전』이나 전근대 '화식전(貨殖傳)'류의 책들에도 종종 등장하는 매점매석의 수완은[18] 구시대에서나 유효했다. 적은 자본으로도 매점이 가능할 만큼 재화의 규모가 빈약하고, 교통과 물자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산지(産地)와 소비지 사이의 정보가 가로막혀 있던 시대에 가능한 치부책인 것이다.

원구 조부같은 소규모 물산객주들은 일본 식민 세력과 대자본이 한국의 산업과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어업 분야에서 일본 자본의 진출은 개항 이래 정부와 민간, 정책과 학술 차원에서 체계적,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19] 자본과 기술에서 조선에 앞선 일본 어업계는 일본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장려금, 다양한 민관 단체들의 조직적 지원, 조선 어업에 대한 방대한 '지식' 구축에 힘입어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다.[20] 한 예로 1907년 통감부 재정감사장관으로 취임한 메가

18) 이재운의 『해동화식전』(안대회 역, 휴머니스트, 2019)에서 진욱은 인삼을, 김극술의 부인 박씨는 감초를 매점해서 큰 돈을 번다. 이밖에도 치부의 방식으로 제시된 자린고비의 절약, 다산을 통한 노동력 확보, 이자놀이 등은 모두 자본주의 이전의 치부책들이다.

19) 이근우,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1-22면; 이영학, 「개항기 일본 정부의 조선 연해 수산업 조사」, 『역사와 현실』 129, 한국역사연구회, 2023, 263-307면.

20) 일본 정부는 '조일통상장정'(1883), '조일통어장정'(1889), '원양어업장려법'(1897), '외국령해수산조합법'(1902) 등을 통해 일본어민의 조선 진출을 장려했으며, 〈대일본수산회〉(1882), 〈조선어업협회〉(1897, 부산),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1900, 부산), 〈조선해수산조합〉(1903, 시모노세키) 등 다양한 민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세키자와 아케키요(関沢明清,

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는 일본인을 향해 한국의 수산자원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산물 집산지인 부산 세관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장래의 발전을 기획"[21]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1908년 어업협정은 일본인이 통어세 없이 조선의 전 수역(水域)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일본측의 어획물을 부산시장에 판매하면서 조선상인들의 도산이 잇따랐다.[22] 한편 러일전쟁 이래 일본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촘촘한 교통·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 1905년 경의선[23]과 관부연락선을 개통하고, '일한통신기관협정'으로 우편, 전신, 전화 등 대한제국 내 통신기관에 대한 지배권도 장악했다.

이처럼 조직적,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식민자본의 유입에 밀려 원구 조부는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며 점차 몰락해 갔다. 원구는 러일전쟁 직후 첫번째 부산방문 때 이미 "일본 세력이 들이밀리고 있어 딴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성천강』, 17면)을 받았다. 1909년 초에는 "하오리, 하까마의 기모노 차림에 게다를 신은" 일본 상인들이 전보다 부쩍 많아진 데다가 "제 고장인양 활기를 띠고"(『성천강』, 269면) 있음을 느꼈다. 조부는 부산 상권이 일본인에게 잠식되는 상황에서도 고향의 가족과 원구에게 근근히 생활비와 학비를 부쳐주었지만, 1912년 9월 무렵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해 장사를 접었다. 숙부 혁찬도 원산의 거간군으로 잠시 자리를 잡는 듯 했으나 "국치 후에는 밀려드는 일본 상인들 때문에 언제 서사를 두고 거간 노릇을 했더냐 싶게 초라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

1843-1897)의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1893)이나 『조선근해어업에 관한 연설(朝鮮近海漁業ニ関スル演説)』 이래로 조선 어업에 관한 방대한 실업적 지식들도 구축되었다.

21) 「韓國의 利源」, 『서우』 12, 1907.11, 29면.

22) 공미희, 「근대 부산에 침투한 일본어업자의 실태분석」, 『일본어문학』 91, 일본어문학회, 2020, 323면; 313-347면.

23) 일본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다음 글은 경의철도 개통이 "한·일·청 세 나라 교통의 지대한 편리와 국민 계발"을 위한 것임을 내세우지만, 경의선 연로 개황에 대한 설명은 철도 개발이 일본의 군사적, 산업적 팽창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京義鐵道의 沿路概況」, 『서우』 11, 1907.10.

다."(『성천강』, 434면)

원구 증조부와 조부의 몰락이 시대의 추세를 따라 점차적으로 이뤄졌다면, 부친의 몰락은 좀더 극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는 원래 원구 증조부의 권력과 조부의 재산 덕분에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던 선비였다. 1893년 21세 때 나이를 한 살 줄이고 갑술과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는데, 서술자는 이를 "민씨 일가에 연줄을 닿을 수 없는 함경도 시골 선비"인 때문이자 이미 조부의 사업이 쇠락해 "돈을 쓸 여력"(『통로』, 575면)이 없었던 까닭으로 돌리고 있다. 원구 부친의 능력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서술자의 논평은 과거제의 혼탁함에 대한 당대인의 기록과 부합한다.[24] 서북지역민에 대한 피차별의식은 『서우』나 『서북학회월보』의 여러 글들에서 반복해서 표출되는 지역감정이었다.[25] 주필을 담당했던 박은식이 "수백 년 동안 서북인이 동일 종족 간에" 차별받아온 역사를 상기시키며, 오늘날 학문

24) 갑술과는 1893년 2월 12일 황태자의 20세를 기념하여 열렸고, 문과 3명, 진사과 30명을 뽑았다. 한편 1894년 2월 20-22일에 행한 과거에서는 갑술생을 모두 합격시키라는 명이 내려 합격생이 200명에 달했다. 두 시험은 종종 혼동되지만, 원구 부친이 치룬 갑술과는 전자로 추정된다. 1893년 갑술과에 대한 기록은 김윤식,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1893.2.18)와 박주대(朴周大), 『나암수록(羅巖隨錄)』(1893.2)에 보이며, 1894년 갑술생을 모두 합격시킨 과거시험의 혼란상에 대해서는 최봉길의 『세장년록(歲藏年錄)』(1894.2.20-22,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권)을 참조할 수 있다. "20일... 늦은 저녁 무렵 과거시험장이 있는 동네를 들어갔다. 사립문이 열리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난입하였는데, 유건(儒巾)을 쓴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떡과 술을 파는 장사꾼도 들어왔다. 과거시험장의 규정의 해이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도 모르게 한심한 마음이 든다." "22일...갑술생(甲戌生) 과유(科儒)는 노론 소론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방(榜)의 끝에 붙이라는 분부가 있었고 춘방(春坊) 계방(桂坊)의 자식 사위 동생 조카와 시임 원임 및 대현의 사손(嗣孫, 종손)도 또한 모두 방의 끝에 붙여 백명을 더 합격시켜서 합격자가 모두 2백명이 되었다.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는 복시의 시권을 뽑아내는 것이 이와 같단 말인가."

25) 서북민들의 피차별의식이나 감정이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제국기 서북지역에 기반을 둔 학술지 『서우』와 『서북학회월보』가 이런 피차별의식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두드러진 사실이다. 조선 후기 이래 글쓰기의 장에 표출된 서북지역 로컬리티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4;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2010.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제2시대에도 또한 하등 민족의 대우를 면치 못할 것”[26]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과거제의 혼탁함과 지역 차별이 아니더라도 원구 부친의 과거 공부는 어차피 지속될 수 없었다. 그가 1894년 원구 조부의 파산으로 공부를 중단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과거제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원구 부친의 연배 중에는 이처럼 변화하는 시세에 직면해 개화지식인으로 ‘전향’한 인물들도 있었다. 『성천강』에서 〈서북학회〉 함흥지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원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나오는 이동휘는 원구 아버지와 동갑인 1873년생이다. 또 원구가 한성에서 만난 〈서북학회〉 지도자 이갑은 1877년생으로 과거에 급제했다가 근대 무관으로 전환했다.[27] 원구 부친 역시 이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을 수도 있다. 그는 1902년 함흥민요때 성밖 농민들과 반대편인 성안 상인이면서도 민요의 취지에 동조하고(3.5-3.9), 1904년 초에는 숙부 혁찬과 함께 동학당(6.5-6.7)으로 활동하

---

26) “幾百年來에 我西北人이 同一種族間에 何等待遇를 受ᄒᆞ얏ᄂᆞᆫ가 旣往은 勿說이어니와 從今以往으로도 我西北人士의 學問進步가 他道人士를 不及ᄒᆞ면 第二時代에도 또ᄒᆞᆫ 下等民族의 待遇를 不免ᄒᆞ리니...” 謙谷, 「人의 事業은 競爭으로 由ᄒᆞ야 發達홈」, 『서우』(『서북학회월보』로 게제) 16, 1908.3, 2-3면; 그밖에도 서북민의 피차별의식은 다음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嗚呼라 我西北諸道의 過去歷史를 追想ᄒᆞ면 何如ᄒᆞᆫ 地位에 在ᄒᆞ엿쓰가 雖道德文章과 英雄才略이 有ᄒᆞᆯ지라도 皆鬱而莫施ᄒᆞ고 屈而未伸ᄒᆞ야 沉滯坎坷가 幾百年于玆矣러니” 「會事要錄」, 『서북학회월보』 3, 1908.8, 8면; “國朝 五百餘年間에 我西北의 歷史로 言ᄒᆞ면 自國初로 至 中廟朝 以上은 將相이 不絶ᄒᆞ고 名宦이 相望ᄒᆞ더니 中廟朝 以下ᄂᆞᆫ 漸見枳塞ᄒᆞ야 顯揚을 不得ᄒᆞᆫ지라.” 「丁卯義士事略」, 『서북학회월보』 12, 1909.5, 39면.

27) 이갑은 11세 때인 1888년 15세로 나이를 속이고 식년시(式年試)에 응시하여 진사 3등으로 급제하였는데, 평안감사 민영휘가 이를 빌미로 이갑 부친의 재산을 빼앗고 화병으로 숨지게 했다. 한동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던 이갑은 〈독립협회〉 활동으로 정치의식에 눈뜨고, 나중에 민영휘를 압박해 되찾은 재산을 근대계몽기 학술운동과 독립운동에 헌납했다. 특히 〈서우〉 학회 창립시 이갑은 매달 300환씩 3,600환을 기부해 학회 1년 경비 총액을 전담했다. (“志士 李甲氏가 捐金三千六百圜ᄒᆞ야 一個年 經費의 總額을 專擔” 李奎濚, 「本會前途의 興替關係에 對ᄒᆞ야 矢心注意ᄒᆞᆯ 것을 互相警告라」, 『서우』 3, 1907.2, 23면) 1934년 잡지 『별건곤』에는 이갑이 (원구 아버지처럼) 갑술과(甲戌科)에 나이를 속이고 응시했다는 일화를 전하지만 잘못된 정보다. 多言生, 「秘中秘話, 百人百話集」, 『별건곤』 69, 1934.1, 18면.

다가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소설에서 상세히 설명되지는 않으나 원구 부친에게도 모종의 근대적 정치의식이 싹트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원구 조부의 파산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함흥 서문거리 상점 점원으로 시작해 잡화점 주인, 재봉사를 거쳐, 러일전쟁 중 대러무역까지 손을 뻗친 상인의 길을 걷게 된다.

원구 부친이 비명횡사하며 급격한 몰락을 맞게 된 것은 1905년 초였다. 러일전쟁 초반 원구네는 네 차례나 피난을 오가느라 가세가 더욱 기운 상태였다. 러시아군이 함흥에 진주해 있는 동안에는 원구 부친의 상점에서 군복을 납품하며 반짝 호황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전선이 만주로 이동하면서 원구 부친은 새로운 사업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착안한 사업은 전쟁으로 은값이 치솟은 러시아 해삼위(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한국의 은화를 팔고 거기서 받은 러시아돈을 원산이나 서울에서 되파는 일이었다. 우리 "은을 외국에 가져다 파는 것"이 "떳떳한 일이 못" 된다는 꺼림칙함도 있었으나 자금을 댄 사돈쪽 친척이 강하게 밀어 붙였다. "대신놈들이 나라르 팔아먹는 조약에다가 도장으 꽝꽝 찍는 판국에 은전으 죄금 가지구 장시로 하는 기 무시기 양심에 가책이 된다는 기오?"라는 반박이었다. 그런 대신들을 향해 역적이라고 욕하는 '애국지사'도 있겠지만, "우리들 장사꾼들이야" "나라와 같이 망해서야 쓰"겠냐는 것이다. "왜노무 새끼들한테 붙어먹는 것보다는 그래두 낫"다는 자기합리화도 있었다.(『통로』, 733면)

이 사건이 일어난 1905년 초는 대한제국 화폐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가장 먼저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했다. 대한제국기 화폐제도의 부실함은 악명 높은 백동화를 비롯해 잘 알려져 있으나(이는 『통로』에서 1902년 함흥민요 발생의 원인이기도 했다), 일본 주도의 화폐 개혁은 대한제국의 화폐 주권을 박탈하고 장차 일본제국의 식민지 경제로 재편하기 위한 결정적 일보였다.[28] 탁지

부는 1905년 1월 18일 화폐조례를 발표하여, 금본위제 아래 신화를 발행하고, 6월 1일부터 구화를 일정 비율에 따라 신화로 교환 또는 환수한다고 발표했다.[29] 이 결정은 민간에 제대로 공지되지 못한 데다가 신구화 교환비율로 의혹과 혼란을 불러일으켰고,[30] 특히 위조 화폐가 많았던 백동화는 제 값을 받지 못해 한국 상인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은화를 러시아에 팔기로 착상했을 때 원구부친은 1차 한일협약("대신놈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뿐 아니라 1905년 초에 발표된 화폐조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화 은 10냥을 신화 금 1환에 상당한 비율"로 교환[31]한다는 칙령은 은 함량에서 신은화와 큰 차이가 없는 구은화의 가치를 1/2로 크게 절하시키는 조치였다. 그 결과 구은화는 신은화와 교환되지 않고 퇴장(退藏)되는 경향이 강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제국기 은화 발행 총액 중 1905년 화폐조례 실시 후 환수율은 약 36%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 궁내부에 축장된 은화를 환수한 것이었다.[32] 이런 상황에서 구은화를 축장한 소유자들에게 러시아와의 '돈장사'는 매

28) 김혜정,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리(1904-1907)」, 『석당논총』 86,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3, 29면; 5-45면.

29) 「官廳事項」, 『황성신문』, 1905.1.21; 「勅令第二号」, 『황성신문』, 1905.1.21; 「勅令第三号」, 『황성신문』, 1905.1.21.

30) 일본 주도 화폐개혁이 초래한 민간의 의혹과 혼란은 다음 훈령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慮或 有未及周知ᄒᆞ니 使此通貨之一大改革으로 一般 人民之疑惑을 到底히 渙釋치 못ᄒᆞᆯ 時ᄂᆞᆫ 經濟上에 不好ᄒᆞᆫ 結果를 招致ᄒᆞ며 或은 奸商輩로 民人의 無知ᄒᆞᆷ을 利用케 ᄒᆞ야 其弊의 滋蔓ᄒᆞᆷ을 堪치 못ᄒᆞ리니..."「度支訓令」, 『황성신문』, 1905.6.9.

31) "第二條 舊貨 銀十兩(銀二元도 亦同)은 新貨 金一圜에 相當ᄒᆞᆫ 比額으로 政府便宜를 依ᄒᆞ야 漸次로 交換 或 還收할 事" 「勅令第四号」, 『황성신문』, 1905.1.21.

32) 대한제국기 은화 발행 상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10냥=1관=2원) 1892년 5냥(19,923원), 1냥(70,402); 1898년 1냥(35,788), 1899년 1냥(62,991); 1901년 반냥(209,744), 1902년 반냥(705,593). 김희호, 이정수, 「1865~1910년 국제 금본위제도와 근대 조선의 화폐량 추정」, 『역사와 경계』 108, 부산경남사학회, 2018, 231면 〈표2〉 참조. 한편 1905년 화폐조례 실시에 따른 은화 환수액은 1906년 궁내부 축장 은화 40만원 이외에는 1908-1909년까지 1,067원에 불과했다는 통계가 있다. 『(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 한국은행, 2006, 75면. 은화 환수율은 발행 총액 대비 환수 총액으로 계산하였다.

력적인 대안이 되었을 터였다. 더욱이 1899년 발행된 1냥 은화, 그리고 1901년과 1902년에 대량 주조된 반냥 은화는 1898년 주러공사관내 한러은행에서 러시아 은화의 독수리 문양을 본떠 제조한 형태를 채택했다. 은함유량 90% 이상에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주조된 대한제국 구은화가 은값이 비싼 러시아에서 팔릴 수 있었던 이유다.

원구 부친이 1905년초 일본 주도 화폐개혁의 폐단을 발빠르게 예측하고 러시아에 은화를 파는 것이 "왜노무 새끼들한테 붙어먹는 것보다는 그래두 낫"다고 합리화할 수 있었던 데는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함경도 지역민의 정서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함경도 보부상 출신인 이용익은 러일전쟁 이전까지 고종의 화폐·재정 정책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고 일본 주도 화폐개혁의 대척점에 놓여있다가 1907년 러시아로 망명했다. 그는 백동화 남발 같은 실정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청렴강직한 성품으로 고종황실에 충성하고 화폐주권 확보를 통해 자주적 국방과 식산흥업을 도모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33] 한편 안수길의 대표작 『북간도』에는 만주의 함경도 출신 이주민들이 러일전쟁 당시 이범윤의 영향 아래 사포대를 조직하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34] 『통로』에서 함흥에 주둔한 러시아군과 지역민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그려진 것 역시 이런 지역정서를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원구 부친은 은화 거래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에 생우를 파는 일에 뛰어들었다. 당나귀에 은전을 싣고 청진까지 가서 블라디보스

33) 보조화인 백동화 남발은 당대부터 대한제국의 대표적 실정으로 비판되었다. "向者에 白銅貨를 濫鑄홈은 實價가 無ᄒᆞᆫ 補助貨라 補助貨ᄂᆞᆫ 制限이 有ᄒᆞ거ᄂᆞᆯ 政府當局者가 貨幣制度에 暗昧ᄒᆞᆯ 뿐 아니라 一時獲利만 貪顧ᄒᆞ고 將來貽害를 不思ᄒᆞ얏도다." 金河琰, 「貨幣의 槪論」, 『서우』(『서북학회월보』로 게제) 16, 1908.3, 30면) 이용익이나 백동화 정책에 대한 양면적 평가는 이윤상, 「대한제국기 내장원경 이용익의 활동과 경제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77,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1, 69-71면; 임호석, 「대한제국의 백동화 발행과 식산흥업 정책」, 연세대 석사논문, 2021 참조.

34) 안수길, 『안수길전집 5: 북간도』, 글누림, 2011, 2부 1장.

톡에 가는 배편을 기다리다가 생각이 바뀐 것이다. 전쟁으로 러시아에 소가 동이 나서 소장사가 제일이라는 말도 있었고, 너나 없이 돈장사에 뛰어들다 보니 러시아의 은 시세가 떨어졌다는 소문 탓도 있었다. “우리 은전을 아라사에 갖다 준다는 양심의 가책”(『통로』, 741면)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도 원구부친에게는 중요한 이유였다. 러시아와 함경도간 소무역은 구한말부터 성행해서, 1900년대에는 최봉준이라는 대상인이 상권을 장악했다. 그는 1903년 4월 인천에서 420톤 규모의 기선 경기환(京畿丸)을 사들여 원산, 성진, 블라디보스토크 간 무역을 전개했고, 그 결과 1903년에는 원산과 성진항을 통해서만 1만 두 이상의 생우가 러시아로 수출되었다. 그런데 러일전쟁 기간인 1904년과 1905년에는 최봉준의 소무역이 중단되면서, 생우 수출이 각기 73두, 26두로 급감했다.[35] 원구 부친이 돈장사에서 소장사로 급선회한 것은 이 틈새를 노리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소를 제대로 다뤄본 적도 없는 그가 수십 마리 소를 끌고 항구까지 가는 데서 발생했다. 그가 우연히 벌어진 소싸움을 말리려다 소에게 들이받혀 그만 객사하고 만 것이다.

연작의 1부에 해당하는 『통로』는 원구 부친의 죽음으로 거의 마감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 급속히 기울어가는 나라와 원구 가문의 몰락이 시기적으로 겹쳐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작가의 작위적 설정이 아니다. 향리로서 양반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증조부가 구질서와 함께 쇠락했다면, 근대 부르주아지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녔던 조부는 제국 자본과의 경쟁에 밀려 도태되었다. 개화지식인이 될 수도 있었을 부친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단히 애쓰다가 우연한 사고로 죽고 말았지만, 그 배경에는 열강들의 제국주의 전쟁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나라의 처지나 일본의 화폐개혁 같은 제국주의 정책이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35) 장윤걸, 「조선 동북부 생우 무역 환경의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8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7-40면; 이정윤, 「19세기 말~20세기 초 대러시아 소 수출과 유통구조의 변화」, 『한국사연구』 189, 한국사연구회, 2020, 227-259면.

평범한 개인들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에 종속되는 상황은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다. 한나 아렌트는 보편적이어야 할 인권이 국민(네이션)의 소속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고, 이는 오늘날 국민국가 체제의 한계나 인권의 역설을 둘러싼 정치철학적 논쟁을 새삼 야기시켰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탈로 국권과 이에 수반된 여러 권리들을 제약·박탈당했던 피식민자들은 국권/민권의 불가분함을 일찌감치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통감부 통치 하의 한국에서도 국가란 왕이나 왕가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라는 근대적 자각이 싹트는 한편, 근대 제국주의가 약소국을 망하게 함이 그 나라 사람들의 존망도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퍼져갔다.

1906~7년 사이 한국에 세 차례나 번역된 량치차오의 「멸국신법론」은 이러한 논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36] 『황성신문』의 「멸국신법론」은 혼탁한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에 은거하며 살고 싶은 희망과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는 '멸국신법'의 시대 인식으로 시작된다. 과거에는 초패왕과 한고조가 흥망을 다툴 때 소평(邵平)이 초야에 묻혀 참외 농사로 생업을 삼고, 오호(五胡)가 나라를 어지럽힐 때 장한(張翰)이 고향 강가에서 농어나 낚으며 세월을 보내도, 오히려 풍진(風塵)에 몸을 더럽히지 않는 선비의 고결한 자세로 칭송받곤 했다.[37] 그러나 이는 나라를 왕이나 왕가라는 "한 사람, 한 가문의 나라로 삼았던" 과거에나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지금은 "학문과 이치에 크게 밝아져 나라는 국민의 공동재산"이 되었고, 한 "나라를 멸하려면 반드시 전국을 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38] 무엇보다 '나

36) 「멸국신법론」의 번역 사정과 『조양보』, 『월남망국사』 판본의 비교는 손성준, 「대한제국기의 「멸국신법론」 다중 번역」: 『조양보』와 『월남망국사』 판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5, 국제어문학회, 2022, 275-310면.

37) "楚覇漢高之興亡을 誰問於邵平之瓜園이며 五胡風塵에 石勒劉淵之成敗가 何關於張翰之鱸膾완듸" 「滅國新法論」, 『황성신문』, 1907.5.1.

38) "昔者에는 國으로써 一人一家의 國을 숨는 故로...(중략)...一人一家만 滅而國滅이라ᄒᆞ되 今也에 不然ᄒᆞ야 學理大明ᄒᆞᆷ으로 乃知國者는 一國人의 公産이오 其與一人一家로는 關係가 甚

라를 멸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단지 칼과 군대로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차관을 도입하고 외국인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하고 국고를 고갈시키고 국채를 늘려 망하게 하는 방식, 여러 열강들을 각기 의지하는 이들 사이의 당쟁과 정치적, 종교적 내분을 이용하는 방식, 원주민을 제국 군대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 본국 군주나 추장을 꼭두각시로 삼아 간접 통치하는 방식, 외국인에게 채광권, 철도부설권, 조계자치권 등을 줘서 자원을 탈취하고 나라와 인민을 궁핍하게 만드는 방식 등등. 열강들의 멸국신법들은 대한제국에 차례로 시행되었고, 마침내 일본제국의 '보호국' 통치로 이어졌다.[39] 원구의 조부와 부친은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애쓴 충실한 가부장이자 상인의 감각으로 시세를 읽으며 나름 기민하게 대처했던 인물들이지만, 결국 멸국의 신법이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휩쓸려 함께 몰락해갔다.

『통로』가 그려낸 조부와 부친의 삶에서는 아직 가족이나 가문을 넘어선 '애국'이나 '국민'의식, 심지어 유교적인 '충'의 가치도 찾아보기 힘들다.

淺薄ᄒᆞ니 苟滅人國者낸 必其全國을 滅ᄒᆞ고 不與一人一家로 爲難ᄒᆞ며" 「滅國新法論」, 『조양보』 8, 1906.10. 25(『원문교감 조양보』 2 , 이강석 외, 보고사, 2019, 70면; 현대어 번역은 양계초, 「멸국신법론」, 『완역 조양보』 2, 손성준 외 역, 보고사, 2019, 90-91면) 이하 멸국의 방법은 『조양보』 8~11호에 연재된 「멸국신법론」의 내용을 요약함.

39) 1906-7년 「멸국신법론」의 번역은 일본의 지도 아래 '문명개화'로 나아간다는 '보호국'의 미망을 깨트리는 데 기여했다. 「멸국신법론」을 가장 먼저 번역한 『조양보』에는 일본에 외교권을 내준 통감부 체제가 필연적으로 내정 간섭과 대한제국의 쇠망을 불러 일으킬 "노예정치"(「78세 노부인의 시국 생각」, 『조양보』 12, 『완역 조양보』 2, 427면)라고 주장하는 글이 실리는가 하면, 열강 중심의 국제질서를 비판하며 「망국지사의 동맹」을 제창하는 급진적 글이 실리기도 했다. 재조일본인 잡지인 『한양보』에도 멸국신법론의 논리에 따라 일본의 '보호국'론을 비판하는 중국 신문기사가 실린 바 있다. "오늘의 멸국신법은 초기에 명분을 주권 존중이라 하여 그 개발 중인 상공업을 흡수하고, 마침내 구실을 치안 보전이라 빙자해 자원을 가진 국가를 관리하는 권리 전부에 미치게 된다. 대개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지 않으면 토인의 저항심을 가라앉힐 수 없고, 그 관리하는 권리를 빼앗지 않으면 완전한 성과를 기약할 수 없으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책략과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관찰하면 그 조치의 차례와 완급을 충분히 알 수 있다."(「일불협약과 지나 신문」, 『한양보』, 권정원, 신재식, 임상석, 최진호 역, 보고사, 1907.9.11, 158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인인 동시에 자신의 사적 삶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은, 몰락하는 구세계의 껍질을 뚫고 막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 원구의 몫으로 남겨졌다. 원구 윗세대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통로』는 제목 그대로 다음 세대인 원구의 서사로 향해가는 '통로'였다.

3. 근대계몽기 학술운동과 〈서북학회〉 함흥지회

『통로』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신계리 시골마을에서 무료한 생활을 이어가던 원구가 배움을 찾아 고향집을 떠나는 데서 끝맺는다. 공교롭게도 『통로』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카프작가들의 『대하』, 『봄』, 『탑』 역시 모두 주인공의 가출로 끝났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 주인공은 아버지로 표상되는 전근대적 질서에 반발하며 '근대' 세계로 나아가지만, 근대 자체의 식민성을 간취하지는 못했다. 일제말 검열과 사상의 시대적 한계에 가로막힌 카프작가들은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이 식민성임을 재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주인공이 전근대의 폐습에 젖은 고향을 탈출해 막연한 근대적 이상을 향해 가출하는 데서 중도반단되고 말았다. 반면 『통로』의 원구는 을사조약 후 함흥의 서당친구들이 우국지정에 불타 너도나도 배움을 찾아가는 모습에 자극받아 가출을 결행했다(9.5). 원구의 가출 서사 역시 표면적으로는 신계골과 함흥, 부산과 서울(한성), 더 넓게는 한국과 일본 및 서구열강들 사이의 공간적 위계를 띠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낙후된 공간을 떠나 좀더 문명화된 공간으로 나아가려는 일방향적이고 맹목적인 욕망이 아니었다. 〈서북학회〉로 대표되는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에서 문명 지식의 추구는 우승열패의 냉혹한 제국주의적 세계에서 '자강'(自强)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었다.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은 제국의, 제국에 의한, 제국을 위한 지식을 '번역'해서 제국

권력에 대항하는 식민지 약소국의 무기로 삼으려는 역설적 기획이었다.

근대계몽기 학술지들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유일한 방편으로 오직 '교육'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처럼, 『통로』 후편인 『성천강』의 방대한 서사는 원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롯이 채워져 있다. 그 중에서도 1907년에서 1910년까지의 서사는 청년 원구가 〈서북학회〉를 매개로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에 깊숙이 연루되면서 새로운 '앎'을 추구했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본격적인 출발점은 원구의 함흥고등학교 진학이었다. 1907년 가을 헤이그 밀사 사건과 함경도 출신 이준 열사의 분사(憤死) 소식이 뒤늦게 함흥에도 전해지면서, 청년들은 위태한 시국을 헤쳐갈 배움을 찾아 더 큰 도시, 더 좋은 학교로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원구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좇아 결혼을 전후해서 함흥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함흥고등학교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1906년 8월 27일 고등보통학교령[40]에 따라 급조된 관립학교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함흥고등학교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했다. 교사(校舍)는 함흥 향교를 개조해 사용했고, 그나마 건물 일부는 측량학교와 나눠쓰고 있었다. 군수가 교장을 겸하고 있었으나 학교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밤에 학교에서 기생들과 술판을 벌여 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교사는 한문을 가르치는 노인 1명과 산술과 일어를 가르치는 일본인 교사 2명이 전부였는데 학생들과의 교감(交感)도 교사로서의 의욕도 없었다. 그나마 있던 일본인 교사들마저 군수(교장)와 학생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떠나고 말았다.[41] 학교는 4

40)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1년 단축가능하며, 입학자는 12세 이상 남자로 보통학교 졸업자로 규정했다.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한국교육사학회, 2009, 7-34면.

41) 통감부 시기 관립학교에 배치된 일본인 교사들은 식민권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학생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점차 식민교육의 '첨병'으로서의 열의를 잃어갔다. 나카바야시 히로카즈(仲林裕員), 「식민교육의 '첨병'의 우울함: 통감부시기 보통학교 일본인 교원과 한국사회, 그리고 식민당국」, 『한국교육사학』 4(3), 한국교육사학회, 2022,

년제였으나 상급반 학생은 거의 없었고, 1,2학년이 대부분이었다. 전교생이 5,60명이지만 실제로는 20명 남짓, 많아야 30,40명이 출석하는 게 전부였다. 짜여진 시간표도 없고, 정해진 교과 일정도 없어, 결석이 흔해 빠진 이름뿐인 학교였다.

『성천강』이 묘사한 관립학교의 열악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민간의 학술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원인이었다. 지역 기반 학회로 첫 깃발은 든 곳은 1906년 10월 15일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 재경 인사들이 중심이 된 〈서우학회〉였다. 곧이어 1906년 10월 29일 함경도 지역 인사들이 〈한북흥학회〉를 조직했고, 1908년 1월에는 양 단체가 통합되어 〈서북학회〉(이하 세 조직을 〈서북학회〉로 통칭)가 결성되었다. 학술운동의 주체들은 관립학교를 책임지는 군수들을 향해 고종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교육에 힘써주기를 당부하기도 하고,[42] 향교에서 백성의 고혈을 빨던 탐관오리들이 학교에 관여하여 상태가 엉망이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43] 세계의 질서가 급격히 변동하고 앎의 배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역사, 일용 사물에 긴요한 산술, 오대주 명칭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천자문과 사략통감만 가르치는 옛 교육[44]은 무용함을 넘어 해악이라고 비판되었다. 일본인 등 외국인에게 교육을 맡기면 자국정신의 양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를 해치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북학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 교육이나 관립학교의 부족함과 부실함을 넘는 대안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서북학회〉는 학회지를 발행하여 사회교육의 매체로 삼고, 각지에 학교나 야학을 설립하고, 속성 사범학교를 통해 교사를 양성·배출했다.[45] 또 각 지역에 지

151-175면.

42) 鄭在和,「郡守는 宜專心於敎育」,『서우』4, 1907.3.

43) 朴漢榮,「警告關北一路」,『서북학회월보』3, 1908.8.

44) 朴殷植,「師範養成의 急務」,『서우』5, 1907.4.

45) 서우학회의 각종 교육 활동에 관해서는 권영신,「한말 서우학회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6 참조.

회를 설치해 해당 지역 교육 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서북학회〉 함흥 지회는 1909년 3월 6일 월례통상회의에서 공식 승인되었다. 〈한북흥학회〉 회원이던 이찬재(李瓚在)의 동의(動議)와 〈서우학회〉 회원이었던 강석룡(姜錫龍)의 재청(再請)이 있었고 이동휘의 담보서가 뒷받침되었다.[46] 함경도의 서북학회 지회 총 13곳 중에서, 함흥지회는 설립 청원자도 미상이고 설립 승인도 늦은 편이었다.[47] 함흥지회와 같은 날 지회로 승인된 개천군(价川郡)이나 귀성군(龜城郡)의 경우 임원 명단도 함께 게재된 것에 비해 함흥지회는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진 바 없다. 지회 설립 전후 〈서북학회〉에 가입한 함흥 지역 회원은 총 27명이었으나,[48] 자세한 인적 사항이나 활동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성천강』에는 원구의 〈서북학회〉 함흥 지회 활동이 비교적 소상하게 그려져 있어 참고할 만하다.

---

46) "咸興郡 支會 請願를 公佈ᄒᆞ미 李瓚在氏 動議ᄒᆞ기를 規則에 違反이 無ᄒᆞ고 李東暉氏 擔保가 有ᄒᆞ니 除視察 認許ᄒᆞᄌᆞ ᄒᆞ미 姜錫龍氏 再請으로 可決되다." 「會事記要」, 『서북학회월보』 11, 1909. 4, 50면.

47) 〈서북학회〉 함경도 지회 13곳의 개요는 조현욱, 「서북학회 길주지회의 조직과 활동」, 『문명연지』 3(2), 한국문명학회, 2002, 134면; 133-160면. 기록상 함경도 서북학회 지회 중 가장 빨리 승인된 곳은 영흥지회로 1908년 5월 20일 장기흡을 청원자로 설립되었다. 〈서북학회〉 지회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조현욱, 「서북학회의 관서지방 지회와 지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123-188면; 「서북학회 의주지회의 교육진흥운동」, 『경기사학』 5, 경기사학회, 2001, 307-333면; 「안악지방에서의 애국계몽운동: 안악면학회와 서북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29-76면; 「서북학회 길주지회의 조직과 활동」, 『문명연지』 3(2), 한국문명학회, 2002, 133-160면; 「오산학교와 서북학회 정주지회」, 『문명연지』 3(1), 한국문명학회, 2002, 37-62면.

48) 金觀錫(서북6, 1908.11, 1인), 李選鎬, 盧旻洙, 柳楨樂, 朱鍾述, 姜聖周(서북10, 1909.3, 5인) 文錫烈, 元和中, 盧起心, 文起珏, 韓溶夏,曹喜林, 李斗烈, 李增林, 朴孝謙, 元容珪, 韓楨周, 韓弘植, 都連浩, 金亨聲, 高炳默, 朴駿燮, 元敎中, 韓溥景, 文述謨, 柳榮彬(서북11, 1909.4, 20인), 李圭政(서북14 1909.7, 1인) 한편 〈한북흥학회〉 시절 회원 중 함흥과의 연고가 보이는 인물은 都近浩, 韓相威, 朱堣 3인이다. 조현욱, 「한북흥학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59-101면의 회원명부 참조.

그러더니 이상태는 더욱 정중한 어조로 변했다.

"윤 공이 알구 있는지 모르겠소마내두 여기에두 서북학회(西北學會)가 들어와서 그 지회(支會)가 생기게 됐소"

……경의선의 교통 편의와 일찍 들어온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북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훨씬 신사조와 신학문이 왕성했던 평안도에서 안도산(安島山) 선생을 중심으로 애국자들이 서북학회를 조직했고 그 후에 함경도에도 그 바람이 불어와 함흥에 그 지회를 설립하게 됐다. 지회장에는 숨은 애국자 이면진 선생이 추대되었다..... (『성천강』, 99-100면)

원구가 함흥고등학교 학도회장인 이상태로부터 〈서북학회〉 함흥지회 설립 소식을 들은 것은 1908년 봄 무렵이다. 함흥지회가 공식 승인된 것보다 약 1년 앞선 시점이다. 〈한북흥학회〉가 1906년 12월 함경도 25개 군에 지회 설립 계획[49]을 밝혔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908년 1월 〈서북학회〉로 통합된 이후 본격적인 지회 설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성천강』에서 〈서북학회〉 함흥지회장으로 언급된 "숨은 애국자 이면진 선생"은 〈한북학회〉나 〈서북학회〉 회원 명단에는 보이지 않는다. 소설에서 안용호라는 실존인물을 윤원구로, 그 가족이나 친구들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서사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북학회 함흥지회장도 실존인물의 이름을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50] 반면 이동휘, 이갑, 안창호 같은 유명 인사들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특히 이동휘는 소설 속에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서북학회〉 함흥지회 건립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그려져 있다.

49) "漢北興學會에셔 評議員金柱炳氏가 咸北二十五郡의 支會를 設ᄒᆞ고 教育擴張의 方針을 着着進行ᄒᆞᆯ 計劃을 議定ᄒᆞ얏다더라." 「北會議決」, 『대한매일신보』, 1906.12.30.

50) 소설에서 허구화된 〈서북학회〉 함흥지회의 인물들과 활동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별고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는 이동휘의 함경도 지역 활동상, 신창리 교회 맥레 목사를 비롯한 캐나다장로회 네트워크와 애국계몽운동의 결합 양상, 『서북학회월보』에 발표된 함흥 지역 회원들의 면면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다.

소설에 제시된 〈서북학회〉 함흥지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1908년 여름 신창리교회 '김권사' 집에 성재 이동휘가 다녀가면서 〈서북학회〉 주최의 관북대운동회가 계획되었다(5.2). 실제로 1908년 10월 29일 함남 각 학교가 함흥에 모여 가을 대운동회를 개최했다는 기사가 있다. 51개 학교, 생도 6,100명, 관람객 21,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51] 소설에서는 원구가 이 운동회의 작문대회에서 우승하여 이동휘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고 했으나, 신문기사는 작문 1등이 정평(定平) 협성학교생도 김여학(金厲學)이라고 전한다. 소설적 허구이거나 혹은 '회고록' 자체에 과장이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가을 대운동회가 함흥 〈서북학회〉 활동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이 운동회에서 이동휘는 애국심을 북돋는 연설을 했고, 신창리교회 김권사는 단발을 권장하는 촌극을 공연했다.(5.5) 운동회 이후 다시 함흥을 찾은 이동휘는 이지부장 댁에 함흥고등학교 학도회 간부들을 불러모아 단발운동을 지시했다(6.1). 소설은 1908년 가을에서 1909년 초봄까지 원구 등이 앞장 서 전개한 단발운동을 길고 상세하게 서술(6.2~8.5)한다. 1909년 2월경 함흥을 재방문한 이동휘가 이번에는 신창리 교회 예배당에서 애국심과 기독교 신앙을 버무린 설교를 하고 회원들의 단발운동 성과를 치하했다(9.2). 1909년 3월 6일 〈서북학회〉 월례통상회의에서 이동휘의 보증으로 함흥지회가 사후 인준된 것은 이런 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북학회〉 함흥지부가 공식 인준될 무렵 원구는 서울 유학을 위해 함흥을 떠났다. 그가 입학한 관립 한성사범학교의 입학 시험일이 3월 15일[52]이고, 그 전 여러 날을 부산 할아버지 댁에 머물렀으니 늦어도 3월초에는 함흥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유학 후에도 원구와 〈서북학회〉의 인연은 꾸준히 이어졌다. 원구가 서울 유학을 위해 무작정 함흥을 떠날 때 서호진에서 부산까지 뱃삯을 대준 이가 서북학회 함흥지회장 이면

51) 「運動盛況」, 『대한매일신보』, 1908.11.14.

52) 「學員募集廣告」, 『황성신문』, 1909.2.23.

진이었다(『성천강』, 265면). 그는 원구에게 도산 안창호를 찾아가 관북 지역에 꼭 들러주기를 부탁하라고 일렀고, 원구는 원동 이갑씨 댁에 머문 안창호를 방문해 이 부탁을 전했다(13.1). 여름방학 중에는 함흥에서 이 지회장의 도움으로 주북면 연합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13.7) 병합 후 한성사범학교를 중퇴하고 실의에 젖어있던 원구를 정숙여학교 교사로 이끌어 낸 것도 함흥고등학교 학도회장 이상태를 비롯한 〈서북학회〉 인맥이었다. 나이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숙여학교 야학에는 이면진 지회장의 시집간 딸, 김권사의 누이동생들, 이상태의 모친이 앞장(『성천강』, 389면)섰다. 1911년 중반 원구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시 서울 중앙학교 2학년에 편입했는데, 서울에 머물던 〈서북학회〉 동지 김명수가 이동휘의 감옥 수감, 안창호의 '거국'(去國) 소식을 전하고 그 자신도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한 것이 큰 자극이 되었다.(15.11) 경제적 곤궁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중앙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원구는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정훈학교 교사이자 대신 자제들의 과외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정훈학교 참관차 올라온 이지회장이 자신이 묵고 있는 연동예배당 목사댁에서 원구에게 정숙여학교 정식교사 자리를 제안한다. 원구는 주저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고향에 정착하라는 조부의 강권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서북학회〉를 통해 배운 교육운동의 사명감에는 귀족학교인 정훈학교보다 고향의 정숙여학교가 더 걸맞는 장소였기 때문이다.(17.1~17.3) 후일 3.1 운동이 전개될 때도 원구를 비롯해 〈서북학회〉 활동을 같이 했던 함흥고등학교 학도회 구성원들이 함경도 각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23장~종장)

이상의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함흥 〈서북학회〉의 대략적인 상황과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의 시대적 분위기가 한 평범한 청년의 삶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서북학회〉 함흥지회의 조직적 거점은 관립함흥고등학교 학도회와 함흥 신창리교회였음을 볼 수 있다. 이동휘는 1908년 8월 〈서북학회〉 함경도 지역 모금위원으로 파견되어 1909

년 5월까지 함경도 각 지역을 순행하며 서북학회 지회 조직에 힘썼다.[53] 그 결과 함흥을 비롯해 덕원, 고원, 문천, 정평, 이원, 길주, 성진, 북청이 모두 이동휘의 담보로 지회를 승인받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동휘는 순행중 각 지역의 교회를 거점으로 삼았고, 함흥에서는 신창리 교회가 〈서북학회〉의 구심점이 되었다. 함흥고등학교 학도들 중에도 신창리 교회 신도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이 서울로 유학갈 때는 연동교회가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신창리교회 맥레(Macrae,D.M., 馬求禮)와 연동교회 게일(James Scarth Gale)이 모두 캐나다장로회 출신 선교사라는 네트워크가 작용했다. 원구 역시 〈서북학회〉 활동 시기에는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교회가 교육 계몽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적 갈등도 표면화되었다. 1917년 무렵 원구는 정숙여학교에 새로 부임한 〈서북학회〉 출신 오교장이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갈등을 빚다가 결국 서울의 불교포교소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18.2) 그에게는 동학이든 기독교든 근대로 향해가는 길목에서 일종의 사상적 지렛대 역할을 했을 뿐, 신앙 자체로서의 의미는 없었기 때문이다.

4. 앎의 배치 전환과 근대적 '인민'의 탄생

그렇다면 원구가 〈서북학회〉와 학술운동을 통해 배운 근대적 '앎'이란 무엇이었을까. 지식의 배치가 근본적으로 변동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져 들어오던 근대전환기에 학회와 학술지들이 그 창구 역할을 자처한 것은 잘 알려진 바다. 『서우』와 『서북학회월보』에도 교육학, 역사, 법학, 국가학, 가정학, 위생학, 식물학 등등 수많은 분야의 지식들이 나열되어

53) 「會計員報告 第二十號」, 『서북학회월보』 3, 1908.8; 「會計員報告 第二十一號」, 『서북학회월보』 4, 1908.9에 각기 이동휘의 파송 비용 30원, 20원이 지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있다. 근대계몽기 학술지들이 나열하는 백과사전적 지식들은 격변기의 지적 조급성과 피상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앎의 배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이란 심화된 전문 '지식'의 전수보다는, 대중적 차원에서 일종의 공통감각(상식, common sense)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당에서 전통 한학을 배우다가 뒤늦게 근대 교육을 접한 원구에게 상식의 재구성은 그 자체로 지난한 과정이었을 터다. 그중에서도 수학은 원구에게 번번이 좌절을 안겨주는 과목으로 여러 차례 상세히 서술된다. 17-8살 늦은 나이에 아라비아 숫자와 구구법을 '신'지식으로 익힌 후, 망해도(望海圖)와 구고법(徇股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 첫 좌절이 찾아왔다. 원구에게 "재미는 있으나" 이해하기 어려워 "무거운 마음"을 안겨준 구고법과 망해도는 사실 동아시아 수학 전통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었다.[54] 한학의 전통에서는 일부 기술 관료들에게만 필요했던 주변적인 지식인 수학이 근대 학교교육에서 주요 과목의 하나로 급부상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학의 전통에 머물던 원구에게 수학은 '신학문'으로 향해 가는 어려운 관문이었다. 한성관립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가장 성적이 안나와서 고민했던 과목이 수학이었다. 원구는 부족한 수학 실력을 보충하려고 매일 방과후 보성전문학교 강습을 들으러 다니며 무리를 거듭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결국 병합 이후 학교를 중퇴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근대초 학술지에 나열된 '신지식'들 중 유독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도 수학이었다. 『서우』에 오래 연재된 「산학을 논하다」(「論筭學」)[55]는 중후한 한문현토체로 숫자가 대상물을 손가락으로 세던 자연적 방식에서 유래했다는 장황한 설명만 반복하다가 끝난다. 이

54) 양성현, 「조선 후기 산학서에 수록된 망해도술(望海島術)의 내용 분석 및 수학교육적 활용 방안」, 『수학교육학연구』 28(1), 대한수학교육학회, 2018, 49-73면.

55) 會員 李裕楨, 「論算學」, 『서우』 1~6, 1906.12-1907.5.

밖에도 학술지들은 식물학, 동물학, 화학, 천문학 등 각종 이과적 지식들을 대개 수학처럼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공했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호소[56]하던 근대전환기 학술운동이 이처럼 얕고 넓은 지식들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면 그 의의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학술지는 더 깊고 넓은 학문으로 독자를 이끌기 위한 입문 역할을 했다. 좀더 심화된 전문지식의 습득, 그중에서도 '실학'적 전문지식의 습득은 국권 회복이라는 목표에 좀더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 학술지들은 전통적인 앎의 배치에서는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던 각종 실업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들이 실리곤 했다. 량치차오의 〈멸국신법론〉이 보여주었듯,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탈이 무엇보다 실업적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측면도 있다. 원구 조부가 무역상으로 성공했던 때와는, '부'의 의미도, '치부'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부'의 단위는 개인이나 가문을 넘어 '국부'(wealth of nation) 관념으로 확장되었고,[57] 산업개발에 따른 생산력 증식과 "상업전쟁(商戰)"을 통한 '국부' 증대가 우승열패의 생존경쟁 시대에 '국력'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58] 그에 따라 농상공을 아우르는 "실업교육이 급선무"임을 주장하고, 염직, 조사(繰絲), 부기전문과, 상업과, 농업과 등 59개의 실업전문과에 90명의 유학생을 파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59] 국부의 원천인 천연자원에 대한 조사나 농·공·임·어업 등 각종 산업 실태에 대한 보고서[60]와 식산흥업[61]의 방책들도

56) 謙谷生,「告爲人父兄者」,『서북학회월보』4, 1908.9.1, 1-4면.

57) "林業을 造成ᄒᆞ며 農業을 大進ᄒᆞ야 椅桐梓漆과 米穀絲麻를 天下에 輸出ᄒᆞ야 社會需用에 供하니 此ᄂᆞᆫ **一私人의 利益뿐 아니오 國家의 富强을 增進ᄒᆞᄂᆞᆫ 一大 基礎**오..." 玉東奎,「實業의 必要」,『서우』8, 1907.7.1, 28면; "實業이 富强文明의 基因됨은 惟一無二ᄒᆞᆫ 法門" 松南春夢 金源極,「實業奬勵爲今日急務」,『서북학회월보』2, 1908.7.1, 5면.

58) "商戰이 優勝者는 其國이 必富ᄒᆞ고 富則必强이라". 李達元,「상전설(商戰說)」,『서우』3, 1907.2.1, 22면;

59) 李承喬,「實業論」,『서우』(『서북학회월보』로 개제) 17, 1908.5.1., 27면; 洪淳五,「切實意見」,『서우』6, 1907.5.1, 3-4면.

학술지에 종종 게재되었다. 대개 일본인의 조사를 역술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말미에는 한국의 부원(富源)을 외국에 빼앗긴 상황을 개탄하고 제국의 '지식'을 활용해 한국의 '자강'을 도모하자는 역술자의 결의가 덧붙여지곤 했다.[62]

국가학이나 정치학, 법학 등도 근대세계의 근본 질서(nomos)를 이해하고 운용하기 위해 핵심적인 학문으로 부상했다. 국가 상실의 위기 앞에서 역설적으로 근대 국가에 대한 지식들이 활발하게 번역, 소개되었다.[63] "법률은 국가통치의 큰 근본"이며 무엇보다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이 '법'의 형식에 기대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법학 공부가 한국의 가장 급무로 부각되었다.[64] 외국인의 공권이나 공법상 의무, 영사재판권, 국법상 국무대신의 지위를 소개하는 기사들은 보호국 통치 하에 만연한 외국인에 의한 권리 침해나 친일 각료들의 의무 방기를 법학에 기대 파악하려는 인식적 노력을 보여준다.[65] 민간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었기에 민법 개요를 연재하는가 하면[66], 학술지 말미에 「기사」나 「관보적요」(官報摘要) 같은 형태로 지방금융조합 규칙, 삼림법 등 주요 법(령)의 제·개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기도 했다.[67] 한편 「아동고사」(我東古事), 「인물고」(人物考)같

60) 박성흠, 「我韓의 鑛産槪要」, 『서우』 4-5, 1907.3-1907.4; 「韓國工業: 日文 京城報 譯謄」 『서우』 7, 1907.6; 「韓國의 鹽業一斑」, 『서우』 11, 1907.10.1; 「我韓의 石炭」, 『서우』 12, 1907.11; 「韓國의 林業: 日本林學博士 道家允之氏의 演說」, 『서우』 13, 1907.12 등.

61) 「養豚實驗談」, 『서우』 13, 1907.12; 日本伊崎吟二郎 著, 全載億 譯, 「養鯉法」, 『서우』(서북학회월보로 게제) 15·17, 1908.2·1908.5; 柏軒 羅錫瑾, 「林政爲富國之機關」, 『서북학회월보』 1, 1908.6.1; 日本 塚本道遠 著, 宋榮泰 譯, 「牡蠣養殖法」, 『서북학회월보』 1, 1908.6.1; 山雲散▨, 「普成學校의 林業科」, 『서북학회월보』 2, 1908.7.1.

62) "此는 日本人目賀田種太郎의 論이라 我韓이 國權이 失墜ᄒᆞ고 民智가 未開ᄒᆞ야 此等利權이 外人의手에 悉歸ᄒᆞ야스니 寧不痛恨이리오 玆에 記ᄒᆞ야 覽者의 目을 供ᄒᆞ노라." 「韓國의 利源」, 『서우』 12, 1907.11, 30면.

63) 「國家의 槪念」, 『서우』 16(1908.3), 17(1908.5), 『서북학회월보』 1(1908.6).

64) 韓文彦, 「我韓의 最急이 法律에 在홈」, 『서북학회월보』 1, 1908.6.1

65) 會員 韓光鎬, 「領事의 裁判權」, 『서우』 7, 1907.6.1; 會員 蔡洙玹, 「國法上 國務大臣의 地位」, 『서우』 9, 1907.8.1; 東初 韓光鎬, 「外國人의 公權及公法上義務」, 『서우』 10, 1907.9.1.

66) 會員 朴聖欽 譯抄, 民法講義의 槪要, 『서우』 7-9, 13 1907.6-8,12.

은 고정란에는 한국의 역사나 위인 등 '국학'적 지식들이 연재되었다.

『서우』나 『서북학회월보』에 소개된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성천강』의 원구에게 흔적을 남긴 것은 수학과 일본어 정도에 불과했다. "동포청년의 교육"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기초"[68]라거나 "국운의 융성과 민지(民智)의 계발"이 오로지 "교육보급"에서 말미암는다는 〈서북학회〉 지도자들의 원대한 교육 목표와 원구가 당장 씨름하고 있던 수학 지식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간극은 원구의 지식 수준이 중등교육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원구 자신도 교육의 부족을 깨닫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유학을 도모하지만, 결국 보통학교 교사에 머물고 만다. 그러나 원구가 받은 교육이 중등교육 정도에 머물고 그가 베푸는 지식이 보통학교 수준에 그친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이 다양한 전문 지식에 앞서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앎이란, '국가' 정신, 곧 인민이 국가의 주체라는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의 방향은 "훗날에 독립과 자유의 국민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개 노예처럼 구속된 민족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69]에 따라 크게 갈린다. '애국적 정신'을 먼저 환기시키지 않으면 외국어를 배운 자는 타국의 밀정이 되고 법학과 정치학을 배운 자는 자기 명예만 추구하고 공업을 배운 자는 적국에 봉헌하니 오히려 망국의 자료가 될 뿐이다.[70] 〈서북학회〉 설립일이 "대한제국 독립의 기초"임을 선언하고 〈서북학회〉의 목적은 "독립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자강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단언했던 이동휘나 유윤선의 「축사」가 보여주듯,[71] 온갖 분야의 지식들은 오로

67) 「記事: 法令」, 『서우』 9, 1907.8.1; 「官報摘要」, 『서북학회월보』 4, 1908.9.1.

68) 「本會趣旨書」, 『서우』 1, 1906.12, 1면.

69) "其設校之意가 果欲使青年子弟로 灌注國家的 精神於腦筋ᄒᆞ야 使之成就異日에 獨立自由之國民乎아"朴相穆, 「教育精神」, 『서우』 11, 1907.10, 18면.

70) 松南春夢 金源極, 「教育方法必隨其國程度」, 『서북학회월보』 1, 1908.6.

71) 李東暉, 「祝辭」, 『서우』 15, 1908.2; 劉允璿, 「祝辭」, 『서우』 15, 1908.2.

지 독립이라는 지상목표에 봉사할 때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교육은 오늘날 인종간 생존 "경쟁의 승패가 지식의 우열로 판별"[72]되고 "교육 성쇠가 국가승패의 원인"[73]이 되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지, 지식의 습득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가간 경쟁은 지력의 전장이기에 학교는 군기창이요, 교사는 사관이요, 학생의 지력은 군기(軍器)라는 비유가 통용되기도 했다.[74]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원구의 진학 선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함흥읍에는 관립 함흥고등학교 이외에도 측량전문학교와 일어만 가르치는 일신학교(日新學校)가 있었다. 완고한 촌민들 중에는 여전히 자제의 신학문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으나, 신학문과 '애국'의 열정을 한덩어리로 받아들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관립 함흥고등학교야말로 이 지역의 유일한 정통 교육기관으로 여겨졌다. 똑같이 '신학문'을 배워도 측량전문학교와 일신학교는 실용 지식을 배워 호구지책으로 삼으려는 약삭빠른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구의 어릴 적 친구 최삼돌이 할아버지에게 억지로 끌려 측량학교에 들어가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이런 시대적 정서를 보여준다(3.6). 반면 함흥고등학교는 탄탄한 학생자치회가 〈서북학회〉와 연계하여 연설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함흥 지역 계몽 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함흥고등학교가 비록 교사와 교육 내용이 부실하고 통감부의 제약 아래 놓인 관립이라는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함흥 〈서북학회〉의 근거지로서 '애국적 정신'을 배양하는 데 앞장섰음은 1909년 무렵의 다음 일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 이달 8일 大久保 군사령관이 함흥에 도착할 예정이므로 군수는 그 전날 각 사립학교에 마중 나갈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당일 참석한 것은 공

72) 總校長 李道宰, 「敬告兩西士友」, 『서우』 6, 1907.5.
73) 張道斌, 「敎育의 盛衰ᄂᆞᆫ 國家勝敗의 原因」, 『서우』 16, 1908.3.
74) 長吁生, 「智力의 戰場」, 『서우』 17, 1908.5.

> 립보통학교와 일진회가 경영하는 선진학교(先進學校) 두 학교만으로 다른 곳은 모두 결석하였다. 특히 함흥고등학교와 같은 곳은 교사로부터 마중을 나가라고 말하였더니 생도들이 삼삼오오 틈을 엿보아 도망쳐 귀가하여 끝내 마중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75]

원구 역시 〈서북학회〉의 영향 아래 독립을 위한 교육운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은 원구의 삶을 추동하는 원동력이었다. 〈서북학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강제해산된 '병합' 이후에도 〈서북학회〉가 뿌린 씨앗은 여기저기서 계속 발아하고 성장하며 또 다른 씨앗을 퍼트리고 있었다. 무단정치기에 원구가 "거국(*정치적 망명)도 못하고 그렇다고 피나는 싸움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겨우 학동을 가르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자신이 창피"(『성천강』, 697면)하다고 여기면서도, "그래두 아직두 교육에 희망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713면)하는 것은 어린 학도들에게 이런 정치 의식이 발현되고 있음을 본 까닭이다. 〈서북학회〉의 학생이던 원구가 정숙여학교에서 가르치고, 원구에게 배운 제자가 다시 정숙여학교의 선생으로 부임한 것처럼, 근대계몽기 학술운동은 무단정치기의 캄캄한 역사의 장막 아래에서도 성천강의 물줄기처럼 면면히 이어졌다. 원구같은 '무명의 영웅'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정치적 삶의 자기-결정권을 깨우치고 주장하는 정치적 주체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성천강』의 대미에 놓인 3.1운동은 이렇게 역사의 장막 아래 복류(伏流)하며 점차 커지고 강해졌던 인민의 역량이 분출된 사건이었다.

75)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高秘發第二四九號」, 1909.9.21, 『統監府文書』 8.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jh_098_0080_0400

5. 결론을 대신하여

『통로』와 『성천강』 연작에서 작가 안수길은 원구라는 개인을 통해 그려진 근대의 정치적 주체의 탄생을 근대적 인민의 탄생이라는 집단적 경험으로 확장시킨다. 가문의 역사나 근대전환기 원구의 문화적 체험이 아버지의 회고록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원구의 삶의 갈피마다 중요한 역사적 계기들을 겹쳐놓아 개인의 삶을 정치적 인민의 탄생이라는 집단의 삶으로 확장시킨 것은 작가의 창작의도의 산물이다. 4.19와 일련의 필화사건, 「분지」 사건 특별변호를 거치면서 성숙된 작가의 역사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통로』, 『성천강』에서 민중의 전설, 1902년 함흥민요, 1904년 동학과의 만남, 1907년 이래 〈서북학회〉의 학술운동이 1910년대 무단정치기 의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거쳐 마침내 3.1운동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짚어, 정치적 인민의 탄생 서사를 좀더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별고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서우』, 『서북학회월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권정원, 신재식, 임상석, 최진호 역, 『완역 한양보』, 보고사, 2021.

권정원, 신재식, 장미나, 최진호 역, 『완역 서우』 1-3, 보고사, 2021.

손성준 외 역, 『완역 조양보』 1-2, 보고사, 2019.

안수길, 「꿰매 입은 양복바지」(『안수길전집』 2, 글누림, 2011)

안수길, 『북간도』(『안수길전집』 5, 글누림, 2011)

안수길, 『통로』 (『안수길전집』 8, 글누림, 2011)

안수길, 『성천강』 (『안수길전집』 13, 글누림, 2011)

안수길, 「망향기」(『안수길 전집』 16, 글누림, 2011)

이강석 외, 『원문교감 조양보』 1-2, 보고사, 2019.

2. 논문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한국교육사학회, 2009, 7-34면.

강진호, 「근대 초기의 풍속과 민족주의적 열정: 『성천강』(안수길)론」,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71-196면.

공미희, 「근대 부산에 침투한 일본어업자의 실태분석」, 『일본어문학』 91, 일본어문학회, 2020, 313-347면.

권영신, 「한말 서우학회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6.

김종욱, 「관북지역과 변경의 상상력」, 『안수길 전집』 8, 글누림, 2011.

김종욱, 「김남천의 『대하』에 나타난 개화풍경」,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2007, 103-124면.

김혜정,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리(1904-1907)」, 『석당논총』 86,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3, 5-45면.

김희호, 이정수, 「1865~1910년 국제 금본위제도와 근대 조선의 화폐량 추정」, 『역사와 경계』 108, 부산경남사학회, 2018, 219-268면.

나카바야시 히로카즈(仲林裕員), 「식민교육의 '첨병'의 우울함: 통감부시기 보통학교 일본인 교원과 한국사회, 그리고 식민당국」, 『한국교육사학』 4(3), 한국교육사학회, 2022, 151-175면.

손성준, 「대한제국기의 「멸국신법론」 다중 번역」: 『조양보』와 『월남망국사』 판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5, 국제어문학회, 2022, 275-310면.
양성현, 「조선 후기 산학서에 수록된 망해도술(望海島術)의 내용 분석 및 수학교육적 활용 방안」, 『수학교육학연구』 28(1), 대한수학교육학회, 2018, 49-73면.
이근우,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1-22면.
이영학, 「개항기 일본 정부의 조선 연해 수산업 조사」, 『역사와 현실』 129, 한국역사연구회, 2023, 263-307면.
이윤상, 「대한제국기 내장원경 이용익의 활동과 경제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77,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1, 37-82면.
이정윤, 「19세기 말~20세기 초 대러시아 소 수출과 유통구조의 변화」, 『한국사연구』 189, 한국사연구회, 2020, 227-259면.
임호석, 「대한제국의 백동화 발행과 식산흥업 정책」, 연세대 석사논문, 2021.
장윤걸, 「조선 동북부 생우 무역 환경의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8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7-40면.
조현욱, 「서북학회 길주지회의 조직과 활동」, 『문명연지』 3(2), 한국문명학회, 2002, 133-160면.
조현욱, 「서북학회 의주지회의 교육진흥운동」, 『경기사학』 5, 경기사학회, 2001, 307-333면.
조현욱, 「서북학회의 관서지방 지회와 지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123-188면.
조현욱, 「안악지방에서의 애국계몽운동: 안악면학회와 서북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29-76면.
조현욱, 「오산학교와 서북학회 정주지회」, 『문명연지』 3(1), 한국문명학회, 2002, 37-62면.
조현욱, 「한북흥학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59-101면.
최경호, 「안수길론: 『통로』, 『성천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연구』 2, 계명어문학회, 1986, 145-172면.
한동민, 「백용성의 만주 대각교 농장과 함양 화과원」, 『大覺思想』 28, 대각사상연구원, 2017, 77-127면.

3.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id/sa_028r_0050_0030_0020

김윤식,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1893.2.18.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미야지마 히로시, 노영구 역, 『양반』, 너머북스, 2014.
박주대, 『나암수록(羅巖隨錄)』, 1893.2.
이재운, 안대회 역, 『해동화식전』, 휴머니스트, 2019.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임화, 「개설신문학사」, 임규찬 외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최봉길, 『세장년록(歲藏年錄)』,1894.2.20-22(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권)
한국은행, 「(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 한국은행, 2006.
『국역 윤치호 일기』, 1902.5.7.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高秘發第二四九號」, 1909.9.21, 『統監府文書』 8.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jh_098_0080_0400
Levine, Michael G., "The Sense of an Unding: Kafka, Ovid, and the Misfits of Metamorphosis", *Franz Kafka's The Metamorphosis*(new edition), ed. by Herold Bloom, N.Y.:Infobase Publishing, 2008.

<Abstract>

A Microhistorical Reading of An Su-gil's *The Pathway* and *The Seongcheon River*
−through intersecting with Northwest Korean Society magazines

Youn, Young-shil

This paper is part of a study that microscopically analyzes society and culture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through Ahn Soo-gil's novel *The Pathway* and *The Seongcheon River,* focusing on the life of the novel character named Yoon Won-gu,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collapse of Wongu's great-grandfather, grandfather, and father depicted by *The Pathway* along with historical background, and examines that the collapse of the Wongu family was linked to the fate of the country, which was rapidly inclined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In particular, it will be analyzed that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his grandfather and father, who were merchants, was not irrelevant to the "New Ways for Destroying Countries" of capitalist imperialism analyzed by Liang Qichao. Chapter 3 highlights the process of Wongu's pursuit of modern ‘knowledge’ in earnest through meetings with the <Northwest Korean Society>. *The Seongcheon River* becomes a window to gauge the activities of the Hamheung branch of the <Northwest Korean Society>, which is rarely known for lack of historical records, and a medium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academic movement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on an individual's life.

Chapter 4 focuses on what ‘knowledge’ Wongu learned through the

academic movement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Outlining the new arrangement of ‘Knowledges’ presented in <Northwest Korean Society> magazines, I examine how the academic movement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was inherited through ordinary and secondary schools opened as a grassroots movement in each region during the 1910s, and that it gave birth to the people as political subjects and eventually led to the March 1st Movement.

Keywords: An Su-gil, *Passage*, *Seongcheon River*, Northwest Korean Society, microhistory, academic movement in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투 고 일 : 2024년 2월 23일 심 사 일 :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4년 3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4년 3월 25일